

백종과 불교의 효 이야기

“계율에 만행이 있으나, 효도가 으뜸이다”

한국의 옛 선현들은 효행을 만행의 근본이라고 했다. 불교에서도 목건련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효행을 기리기 위한 백종 절기가 있다. 하지만 이도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효 문화는 현재 세대에는 왠지 거북한 웃과 같다. 실제 재산을 상속받고도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봉양을 전제로 자식이 재산을 받고 이를 행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을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중국 정부는 7월 1일부터 '효도법'을 제정해 최소 2달에 한 번은 부모를 찾아뵙기를 의무화했다. 효행의 절기인 백종(우란분제)을 맞아 불교 속 효 이야기를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부모은중경> 중 '생자망우'를 설명하고 있는 변상도.

서산대사

부모님 영전에 바친 제문

(출가 세계의 관행상), 부모님의 은혜를 끊는 것이 비록 불교의 법도라고는 하지만, 아득한 지난날을 추억하며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또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의 하나인) 효를 강조해 온 유교의 강령이기도 합니다. 무성히 자란 바와 기장을 마주 대하게 될 때마다 부모님의 무덤가가 떠올라 탄식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노라면 구름 또한 애처롭고, 무덤가에 서있는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보며 여를 갖춘 의관을 떠올리노라면 바람소리조차 서럽습니다. 아! 몹시도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청등은 벽에 걸려 있건마는 이제 베를 짜시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으며, 고향 산천의 (저녁 밥 짓는) 연기와 휘영청 밝은 달이 어우러진 정경은 변함없건마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를 지으며 술을 마시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으니 (이런 옛 일들을 추억하게 하는 말)소리와 모습들이 오랜 세월동안 영원히 이별이유니다.

진묵대사

어머니 영전에 바친 제문

태중에서 열 달 동안 품어주신 그 은혜/ 어떻게 갚사오며/ 슬하에서 삼 년 동안 길러주신 그 은혜/ 결코 잊을 수 없나이다/ 만세에 만세를 더 사신다 하셔도/ 자식의 마음에는 오히려 부족하거늘/ 인생 백년이라고들 하는데 백년

도 다 채우지 못하셨으니/ 어머니의 수명은 어찌 그리 짧으십니까!

표주박 하나 매달고 거리에서 걸식하는 저야/ 이미 그렇다고 해도/ 아직 비녀도 꽃지 못한 채 규중에 있는 시집 못한 누이동생/ 어찌 정말로 애처롭지 않겠습니까?

상단불공을 마치고 하단제사도 마치자/ 스님들은 제각기 방으로 돌아가고/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첩첩산중인데 / 어머니께서는 어디로 가시렵니까? / 아! 참으로 슬프도다!

주광 선사

승려 역시 효를 다해야

승려로서 부모님께 불효한 자를 내가 크게 나무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출가를 했다는 것은 이미 부모님 곁을 떠나 혈육의 정을 끊은 것인데, 이를 나무라시면 오히려 은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아! 그게 무슨 말인가! 대호의 본보기를 보아신 석가세존께서는 무수한 세월 동안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셨으며 그 인연을 쌓았기 때문에 정각을 이루신 것이네." 또한

<법명경>에서도 "계율에 비록 만행이 있으나, 그 가운데 효도가 으뜸이다."라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한편 <불설관무량수불경>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봉양하는 것이 청정한 업을 짓고 바른 인연을 쌓는 것이다."라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옛 어른은 집을 따로 지어 어머니를 모셨으며, 어떤 이는 늘 어머니를 등에 업고 걸식을 하기도 했으나, 일찍이 은혜에 얽매던 적이 없었으니, 어찌 부모님과 혈육의 정을 끊었겠습니까!

세간·출세간의 효도

세간의 효도에는 세 가지가 있고, 출세간의 효도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세간의 효도는, 첫째는 뜻을 맞추고 좋은 의복을 해 드리며, 맛있는 음식으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과거시험에 합격해 벼슬에 나아가며, 아울러 국가에서 주는 녹봉으로 부모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덕을 닦고 힘써 행하여 성현이 되는 것으로 부모님의 명성까지도 널리 드러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가 곧 소위 세간의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출세간의 효도는, 부모님께 권하여 계율을 지키고 도를 행하게 하며, 일

심으로 청명염불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시게 하여 영원히 사생을 벗어나고, 완전히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서 연화대에 태어나 아미타부처님을 친근하여 불퇴전을 얻게 해드리는 것이니,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는 것입니다.

-<지문승행록>에서 발췌

동산선사

어머니를 하직하는 편지

앞드려 듣자오니,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올 때는 모두 부모에 의탁하여 살을 받았으며 만물이 생겨날 때는 모두 하늘이 덮어 주고 땅이 실어 주는 힘을 빌렸다 하였습니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하고 천지가 없으면 자라나지 못하니, 모두가 길러주는 은혜에 흠뻑 젖어 있으며 모두가 덮어 주고 실어 주는 은덕을 받았습니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부모님께서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가까이 버리어 뜻으로 새로이 인연을 짓지 마시고 석가세존의 아버지이신 정반왕을 배우시며 어머니이신 마야부인을 분받으십시오.

대저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몸을 수양하고 효도를 행함으로써 하늘의 마음과 합치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자는 출가 승려로서 도를 사모하고 참선 수행을 함으로써 자비로운 어머니의 은덕에 보답할 것입니다.

<부모은중경>

은혜에 보답하는 길

아난이 석가세존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보답할 방법을 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똑똑히 듣고 이를 잘 삼찰하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리라. 부모님의 은혜는 넓은 하늘과 같이 다함이 없는데 어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효성스럽고 순종하는 착한 자식이라면 능히 부모님을 위하여 복을 짓고 경건 불사를 할 것이다. 혹은 음력 7월 15일에 우란분을 지어 세존과 수행공동체에 베풀면 한량 없는 과보를 얻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게 되느니라.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사경하여 세상에 유포하고 이를 받아 지니며 늘 읽고 외우면 반드시 이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이 글은 박영재 서경대 교수가 엮은 '은 몸으로 읽는 지구촌 효 이야기' 중에서 일부 발췌했습니다.)

社說

이주민 지원교화 이대로 안된다

"회사서 문제가 생겨 도움이 필요할 때 불자인 우리 스리랑카 친구들은 갈 곳이 없어 교회에 손을 내민다" "캄보디아서는 한 달에 네 번 불교행사에 참석 하는데, 한국의 캄보디아인들은 교회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 편히 참석하기 힘들다."

15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에 대한 불교계에 쏟아내는 불만 소리들이다. 이들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 부족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에 가입된 18개 단체가 왕성하게 활동하지만 이주민 규모나 이웃종단의 활동에 비하면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천태종을 제외한 불교계 이주민지원시설은 모두 28곳, 이에 반해 천주교는 146곳, 개신교는 600곳에 이른다. 엄청난 차이다.

이런 현실에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최근 펴낸 '다문화사회와 한국불교의 역할' 보고서는 국내 이주민현황과 이웃종교의 지원

원활동 사례를 짚고, 불교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특히 종단 차원의 과제로는 △이주민지원 시설 확대 △교구별 특화 지원시설건립 △승려·신도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 반영 등을 제안한 것은 신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교계의 다문화 정책은 종단-교구본사-사찰-종단 내 지원단체-복지기관'이 결합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주민정책 수립과 시설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교계의 이주민지원활동은 통계 수치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웃종교의 이주민지원활동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먼저 종단의 장기적 마스터플랜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 불교계가 그들을 위한 합리적 시스템을 갖추고 그들쪽으로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처음도 끝도 좋은 '총무원장 선거'

오는 10월 10일에 있을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이제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불교광장이라는 최대 정책모임의 등장으로 상황이 정리된 듯 보인다.

前 화엄·법화회, 무량회라는 두 정책 모임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모여 후보를 추대하겠다고 나선 만큼 다른 대항마가 나오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광장을 놓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러 비판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불교광장은 최근 선원·율원·강원, 교구본사, 각 정책모임, 비구니 대표를 포함한 추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무원장 후보 추대를 위한 작업들을 이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추대된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9인의 갈마위원회도 만들었다. 갈마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추대된 후보에 대해 선거법에 저촉될 사안 여부와 5대 추대 기준 부합, 소신 정책을 살피게 된다.

그간 종단의 선거는 흑색 비방, 금권 등 폐단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불교광장의 추대위원회와 갈마위원회 구성은 이런 부조리를 넘어 청정하고 조용한 선거 분위기를 만들자는 자구책이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기독교의 종권 재창출로도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모든 직능과 본사 주지 스님들이 모여 후보를 추대하고 검증하는 것은 조유의 일이다.

중요한 것은 후보 추대와 검증이 모든 종도와 사부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부처님은 전도 선언에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고 하셨다.

불교광장은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중 이다. 취지와 시도가 좋았던 만큼 후보의 추대와 검증 과정도 투명해야 하며 종도의 여론을 잘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은 34대 총무원장 선거를 치러낼 수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Table with 2 columns: Contact information (phone, fax, website) and subscription information (monthly, quarterly, annual rates).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종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향상품에 지냈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민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송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치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가 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중(현옥) 가액 ₩60,000원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Advertisement for '기반' (Giban) shoes. Features a large image of a shoe, a list of product features (e.g., shock absorption, arch support), and pricing information (VIP type 49,000원 to 44,000원). Includes a diagram of the shoe's internal structure and a list of benefits for the feet.